

함평군, '관광인프라 구축'...1320억원 규모 투자협약 체결

칸타타골프리조트(주)·함평엘리체컨트리클럽(주) 등 참여 골프장 및 숙박시설 구축...180여 명 고용창출 기대

함평군이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 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체류형 관광지 도약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주목된다.

함평군은 27일 "이날 오전 함평군청 군수실에서 칸타타골프리조트(주), 함평엘리체컨트리클럽(주) 등 2개 기업과 1,32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상의 함평군수를 비롯한 칸타타골프리조트(주) 박래근 대표, 함평엘리

체컨트리클럽(주) 류채봉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칸타타골프리조트(주)는 720억원을 투입해 해보면 금계리 일원(962,860㎡)에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향토기업인 도원산업(주)의 자회사인 칸타타골프리조트(주)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골프 인구 저변 확대에 맞춰 골프장 조성을 통한 12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숙박시설 확충을 통해 60여 명의 신규 고용 창출은 물론 함평군이 역점으로 추진중인 체류형 관광기반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기업 모두 지역과 함께 상생 발전하길 바란다"며 "아울러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숙박시설 확충 등 관광인프라 구축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훈기자



영광군, 폭염대비 살수차 운영

영광군은 지난 25일, 폭염특보 발효에 따라 군민의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주요도로에 살수차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비교하여 특보 최초 발효일자가 12일 빨라지는 등 이른 폭염이 찾아와 당분간 매우 무덥고 극심한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다.

이에, 영광군은 도로 살수 작업을 통해 도로 가열을 해소하여 주변 체감 온도를 낮추고, 도로 미세먼지 제거 및 도로노면 청소효과를 통하여 군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살수차 운영은 폭염특보(체감온도 33℃ 이상일 때) 발효 시 가장 더운 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을 하며, 영광읍 등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폭염으로 인한 군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다"며, "폭염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군민께서는 가장 더운 시간대인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야외 작업 등 무리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그늘 및 실내에서 충분한 휴식과 수분 자주 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념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기자

영광군은 지난 25일, 폭염특보 발효에 따라 군민의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주요도로에 살수차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비교하여 특보 최초 발효일자가 12일 빨라지는 등 이른 폭염이 찾아와 당분간 매우 무덥고 극심한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다.

이에, 영광군은 도로 살수 작업을 통해 도로 가열을 해소하여 주변 체감 온도를 낮추고, 도로 미세먼지 제거 및 도로노면 청소효과를 통하여 군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살수차 운영은 폭염특보(체감온도 33℃ 이상일 때) 발효 시 가장 더운 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을 하며, 영광읍 등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폭염으로 인한 군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다"며, "폭염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군민께서는 가장 더운 시간대인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야외 작업 등 무리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그늘 및 실내에서 충분한 휴식과 수분 자주 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념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기자

목포시, 열린행정 마중물 '시민소통신문고' 신설

목포시가 실질적인 소통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목포시청 홈페이지에 온라인 소통창구인 '시민소통신문고'를 개설한다.

시는 그동안 온라인 소통창구로 '시장에게 바란다', '시민청원' 등을 운영해왔다. '시장에게 바란다'는 주로 민원을 접수하는 청구였고, '시민청원'은 다수의 지지를 얻어야만 접수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 온라인

소통창구를 폐지하고, 소통이 중심이 되는 공감행정을 펼치기 위해 '시민소통신문고'를 새롭게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시민소통신문고' 신설은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겠다는 박홍률 시장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시는 접수된 민원과 건의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목포=기동취재본부

무안군, 상반기 재정집행 전국 '우수기관' 선정

행정안전부 평가 전국 우수기관...특별교부세 4700만원 확보

무안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2년 상반기 재정집행 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전라남도 평가에서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로 군은 행안부로부터 4700만원, 전남도로부터 6600만원 등 1억 13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됐다.

군은 상반기 신속집행 대상액 3,403억원 중 1,926억원을 집행해 행안부에서 설정한

목표인 1,892억원(55.6%)보다 34억원을 초과 집행해 상반기 최종 56.58%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특히, 민간에 직접적·경제적 파급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소비·투자 분야에서 1분기에 113%, 2분기에 125%를 기록하는 등 집행률이 목표액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집행률 제고를 위해 부군수를 주제로 수시로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개

최하고 부진사업에 대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을 해왔으며, 특히 시설공사 부분의 선금 확대 지급, 기성금 조기 정산, 소모품 일괄 구매를 실시해 코로나19와 국제정세로 위축된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재정집행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김산 군수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을 오랜 기간 감내하며 잘 이겨내 주고 계신 모든 군민들과 뒤에서 묵묵히 지원하고 있는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하반기에도 효과와 효율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예산 집행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무안=이성기기자

찾아가는 집단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영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영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3월부터 7월까지 13개 학교(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2개교)를 대상으로 위기청소년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청소년 집단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교를 직접 찾아가 청소년들에게 자존감 향상과 관계 향상, 생명존중, 인터넷·스마트폰 과몰입 해소 등을 위한 심리상담과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스트레스와 갈등에 대한 대처와 건강한 소통법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찾아가는 집단상담으로 청소년들은 각자의 생각, 느낌, 관심사를 함께 얘기하고 들으며, 자기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친구들과의 관계 향상과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아감으로서, 서로간의 공감 능력을 높이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집단상담에 참여한 한 학생은 "집단상담에 참여하면서 평소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방법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찾아가는 상담의 활성화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이는 학생들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기자

신안군 (구)암태농협창고에 '암태소작항쟁 100년史' 담다

신안군은 2023년 암태소작항쟁 100주년을 맞아 서용선작가와 함께 (구)암태농협창고에 암태소작항쟁의 역사를 예술작품으로 기록하는 독특한 작업을 시작하였다.

암태소작항쟁은 1923년 8월부터 1924년 8월까지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도의 소작인들이 자발적으로 일으킨 농민항쟁이다. 약 1년간에 걸쳐 전개된 소작농민항쟁은 일제강점기의 식민상황과 격동기 이데올로기와 맞물려 국제적 연대가 이루어진 농민항쟁이다.

암태도 소작인들은 암태소작인회를 조직해 암태도의 식민성과 지주를 비호 하는 일제에 대항하는 소작항쟁을 벌였다. 이는 목포경찰서·법원시위농성, 단식투쟁 등 소작인들뿐만 아니라 암태청년회와 암태부인회까지 참여하여 암태도 전 주민들이 참여하여 저항한 민중항쟁이다.

신안=이명주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뀐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